

KERI Brief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slee@keri.org)

최 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 Fed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홍국생명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로 투자자들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기업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자본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여의치 않아 기업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자금조달액은 간접금융(은행, 비은행),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17년 약 134조원에서 '21년 약 330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2/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713.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8.4조원 증가하여 전분기(63.9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22 9월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16조 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20조 5천억원) 4조 550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IPO 시장이 냉각되면서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한 기업 증가하였고, 회사채 대란이 벌어진 2022년 10월 국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

로 급감하였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 환율 리스크 관리, 신용등급 관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 고려한 금리 인상, 공급망 관리 통한 소재부품 수급 안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 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목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지만, 실질금리는 미국보다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거 한미 명목 기준금리 역전 시기에 국내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예대율 규제완화, 지급준비율 규제완화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건정성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개선, 채권시장 안정, 예대율 여력 확보를 통해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금문제를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 미국 Fed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로 투자자들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기업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자본 조달이 가능한 상황

○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1년 4분기) 2.5조원 → ('22년 1분기) 27.8조원 → ('22년 2분기) 46.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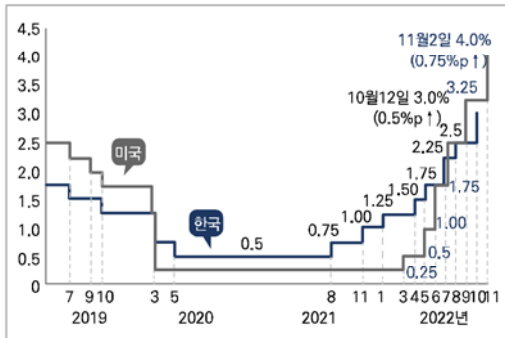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

※ 기업들의 제품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수요가 자금조달을 주도(운전자금)시설자금)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

〈그림 1〉 기준금리 및 회사채 금리 추이

[한·미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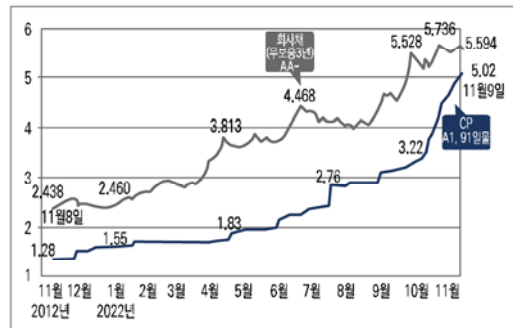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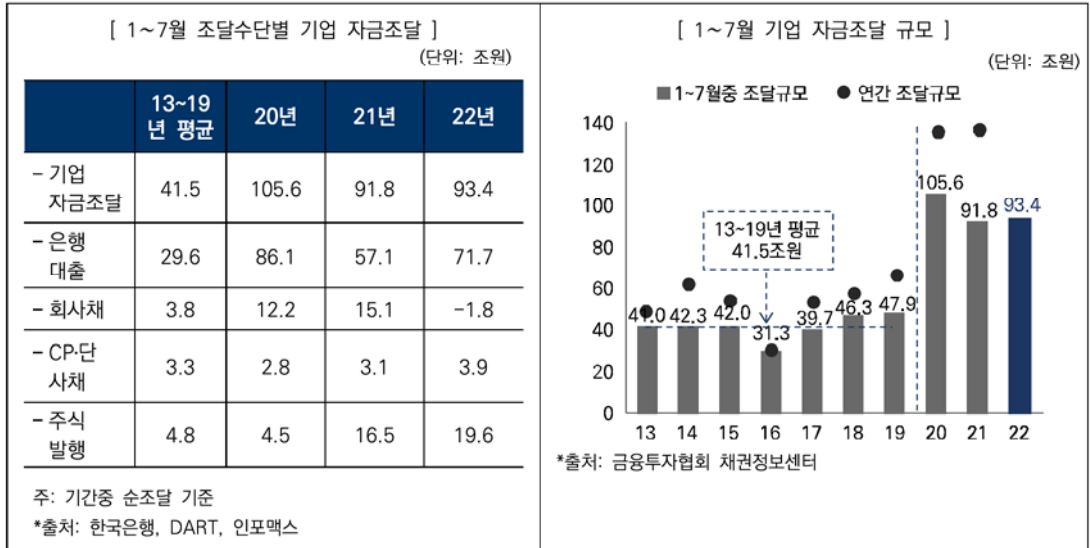
[회사채 및 기업어음 금리 추이]

(단위: %)



*출처: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그림 2〉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 본 연구의 목적

- 최근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정부는 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 기업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본 연구는 기업 자금조달 및 기업금융 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기업금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1. 개황

(1) 기업 자금부족 규모

□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약 47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1년 4분기) 2.5조원 → ('22년 1분기) 27.8조원 → ('22년 2분기) 46.9조원
- 기업의 자금 부족규모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비금융법인의 금융거래표 조달과 운용 차액으로 산출¹⁾

1) 산업은행,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참조

〈표 1〉 기업 자금 부족 규모 추이

(단위: 조원)

	분기	자금운용 (A)	자금조달 (B)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 (A-B)
2017	1/4분기	11.4	8.6	2.8
	2/4분기	23.4	39.1	-15.8
	3/4분기	42.7	42.9	-0.2
	4/4분기	32.6	33.9	-1.2
2018	1/4분기	48.6	61.6	-13.1
	2/4분기	9.2	24.2	-15
	3/4분기	41.6	50.4	-8.8
	4/4분기	45.1	52.6	-7.5
2019	1/4분기	28.9	42.9	-14
	2/4분기	11.2	26.6	-15.3
	3/4분기	8.7	26.5	-17.8
	4/4분기	52.3	66.2	-13.9
2020	1/4분기	32.2	60.8	-28.6
	2/4분기	65.5	95.2	-29.6
	3/4분기	24.2	40.3	-16.1
	4/4분기	62.9	78.1	-15.3
2021	1/4분기	35.2	57.7	-22.5
	2/4분기	59.6	79	-19.4
	3/4분기	64.5	90.8	-26.4
	4/4분기	100.6	103.2	-2.5
2022	1/4분기	42.8	70.6	-27.8
	2/4분기	48.5	95.4	-46.9

주: 자금운용은 금융자산의 매입을 의미하며 은행예금,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입이 이에 해당하고, 자금조달은 금융부채를 통한 자금 획득을 의미하며 은행차입, 주식이나 채권 등의 발행이 이에 해당함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비금융법인기업 기준, '22.10.6)

<p>(2) 기업 자금조달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금조달액은 간접금융(은행, 비은행), 직접금융(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17년 약 134조원에서 '21년 약 330조원으로 증가 <p>2.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별 현황</p> <p>(1) 금융기관 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현황) '22년 2분기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약 1,713조원(은행권·비은행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713.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8.4조원 증가하여 전분기(+63.9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산업별) 2022년 2/4분기말 서비스업(+46.4조원 → +48.1조원)은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 제조업(+13.2조원 → +10.9조원)은 축소 ○ (용도별) 2022년 2/4분기말 운전자금(+41.9조원 → +44.0조원) 및 시설자금(+22.0조원 → +24.4조원)은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 ○ (업권별) 2022년 2/4분기말 예금은행(+28.1조원 → +36.2조원)은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 비은행예금취급기관(+35.8조원 → +32.2조원)은 축소
--	---

〈표 2〉 기업 자금조달구조 연도별 추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금조달액(십억원)		133,615.3	174,600.3	156,911.4	274,316.1	330,456.8
간접금융(%)	예금은행	41	34	38	45	41
	비은행금융기관	16	18	25	13	12
직접금융(%)	주식	20	24	22	12	19
	회사채	-4	1	12	9	7
	기업어음	1	3	-2	-1	1
해외차입(%)		-2	2	4	1	2
기타(%)		29	19	1	20	17

출처: 한국은행, 「2021년 자금순환표」 부표 참조

〈표 3〉 분기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 (은행권·비은행권 포함)

	20 4/4	21 1/4	21 2/4	21 3/4	21 4/4	22 1/4	22 2/4	22 3/4 (추정)	22 4/4 (추정)
기업대출 (조원)	1,393.6	1,435.8	1,478.5	1,530.7	1,580.7	1,644.7	1,713.1	1,781.5	1,852.7

출처: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참조

〈표 4〉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증감액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

		2021			2022		
		2/4	3/4	4/4	1/4	2/4p	잔액P
합 계		42.7 (11.3)	52.2 (12.1)	50.1 (13.4)	63.9 (14.5)	68.4 (15.9)	1,713.1 <100.0>
산업별	농림어업	1.2 (7.1)	0.9 (7.2)	1.6 (9.1)	2.7 (13.2)	3.0 (16.4)	58.0 <3.4>
	제조업	4.9 (4.0)	7.7 (4.4)	2.8 (5.7)	13.2 (7.2)	10.9 (8.5)	439.4 <25.7>
	서비스업	33.7 (14.9)	41.2 (15.8)	40.4 (16.6)	46.4 (17.7)	48.1 (18.6)	1,121.6 <65.5>
	건설업	2.2 (11.4)	1.8 (11.9)	1.3 (16.2)	3.4 (17.3)	4.0 (20.1)	62.3 <3.6>
	기타 ²⁾	0.7 (16.0)	0.6 (14.4)	4.0 (24.7)	-1.7 (13.7)	2.5 (20.2)	31.7 <1.9>
용도별	운전자금	21.8 (10.4)	28.7 (10.7)	30.8 (13.0)	41.9 (14.5)	44.0 (16.7)	1,016.5 <59.3>
	시설자금	20.9 (12.6)	23.5 (14.1)	19.2 (14.1)	22.0 (14.6)	24.4 (14.7)	696.7 <40.7>
업권·형태별	예금은행	21.9 (7.9)	28.3 (8.5)	21.7 (9.3)	28.1 (9.4)	36.2 (10.5)	1,204.9 <70.3>
	법인기업	12.5 (6.3)	17.2 (7.1)	14.7 (9.1)	19.3 (9.7)	30.7 (12.2)	754.0 <44.0>
	비법인기업	9.4 (10.5)	11.1 (10.8)	7.0 (9.6)	8.8 (8.9)	5.5 (7.7)	450.9 <26.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20.8 (22.2)	23.9 (23.0)	28.3 (25.8)	35.8 (29.6)	32.2 (31.0)	508.2 <29.7>
시설자금/산업별대출금 ⁴⁾		41.1%	41.2%	41.1%	40.9%	40.7%	-

주: 1) ()내는 전년동기말 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2)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3)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4) 기말잔액 기준, 전체 산업별대출금에서 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한국은행

(2) 채권 발행

□ (채권 현황) '22 9월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16조 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20조 5천억원) 4조 550억원 감소

○ (잔액 현황) '22.7월 637.3조원, 8월 642.3조원, 9월 643.2조원

* 금융감독원, 「22.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참조

○ (연도별 채권 발행 추이) 2015년 약 123조원에서 2021년 약 202조원으로 크게 증가

〈표 5〉 채권 발행 추이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23.1	109.9	144.0	160.9	170.2	183.6	202.4
일반회사채	40.9	24.4	32.3	35.7	45.3	42.1	46.7
금융채	36.0	44.3	59.4	71.8	73.0	81.3	87.1
은행채	26.7	23.4	37.3	37.3	36.98	39.4	52.5
ABS	19.5	17.8	15.0	16.1	14.9	20.9	16.1

주: 1) 일반회사채 : 회사채 중 금융채 및 ABS를 제외한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2) 금융채 : 카드사, 할부금융사, 증권사, 종금사,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회사채
 3) ABS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참조

□ 최근 회사채 시장 경색 원인

- 주요 기관들의 투자 여력 약화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
- 금리 불확실성 확대로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 수요 위축
 -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크게 높아짐
- 2022년 3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가 급감
 - 발행시장 위축에 공모회사채 39% 감소
 - * (금융투자협회, 「2022년 3분기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현황」 참조)
 - 회사채 시장 불신에 스프레드 확대 및 고금리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3) 주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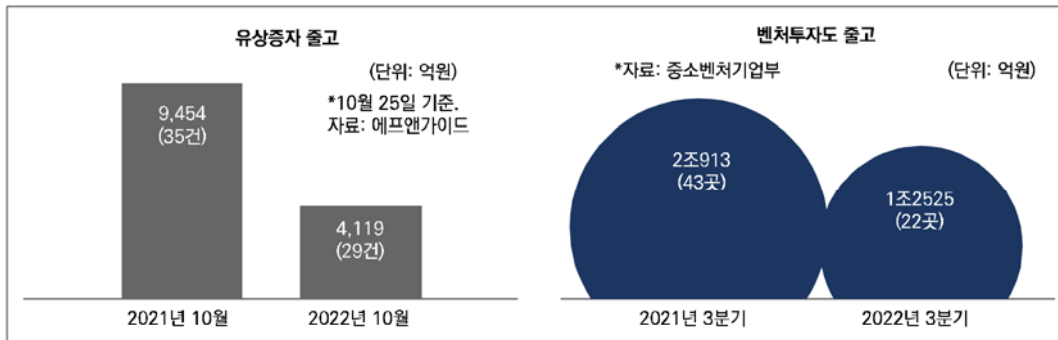
- (주식 현황)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
 - (기업공개)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해 IPO 시장이 냉각되면서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한 기업 증가
 - 2022년 상장을 추진했다가 공모 일정을 철회한 곳은 밀리의서재, 제이오, SK실더스, 골프존커머스, CJ올리브영 등 11곳으로 집계

〈표 6〉 2022년 월별 상장 통계 추이

기간	상장 기업수	평균 상장 자본금(천원)	평균 상장 시가총액(천원)	상장 시가 총액 합계(천원)	평균 공모금액	공모금액 합계
1월	6	22,464,411	11,757,987,608	70,547,925,646	2,136,128,528,117	12,816,771,168,700
2월	13	4,432,551	128,312,680	1,668,064,836	25,999,100,000	337,988,300,000
3월	8	2,792,201	83,392,400	667,139,199	19,082,500,000	152,660,000,000
4월	7	1,339,512	40,255,441	281,788,089	12,598,348,429	88,188,439,000
5월	3	2,681,720	142,618,827	427,856,480	25,166,666,667	75,500,000,000
6월	11	3,770,048	137,583,496	1,513,418,458	30,655,518,491	337,210,703,400
7월	13	6,125,914	195,174,171	2,537,264,221	33,751,538,462	438,770,000,000
8월	8	2,139,574	235,942,493	1,887,539,940	54,399,755,000	435,198,040,000
9월	9	2,917,242	266,133,896	2,395,205,066	59,161,111,111	532,450,000,000
10월	20	3,989,961	87,740,661	1,754,813,216	17,620,235,000	352,404,700,000
11월	13	2,774,912	206,605,477	2,685,871,200	25,115,942,923	326,507,258,000
12월	0	0	0	0	0	0

출처: KIND, IPO 현황(2022년 11월 21일 기준)

〈그림 3〉 최근 3년간 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 규모



출처: 매일경제

○ (유상증자) 회사채 대란속 유상증자 절반

- 회사채 대란이 벌어진 2022년 10월 국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
- 금리 급등으로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마저 힘들어지며 기업들의 연말 자금조달 계획에 비상

3. 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²⁾

(1)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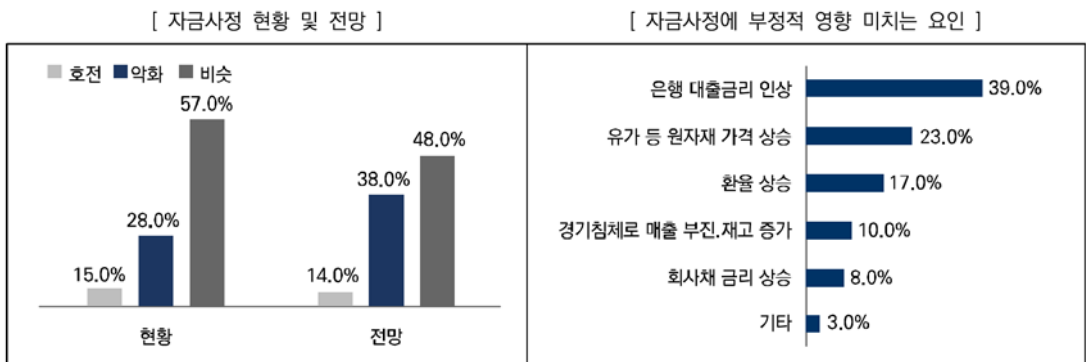
-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전년도 동기 대비 비슷하거나 악화된 상황이며, 연말로 갈수록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연말로 갈수록 자금사정은 비슷(48.0%)하거나 호전(14.0%)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악화(38.0%)된다는 응답은 증가

(2) 자금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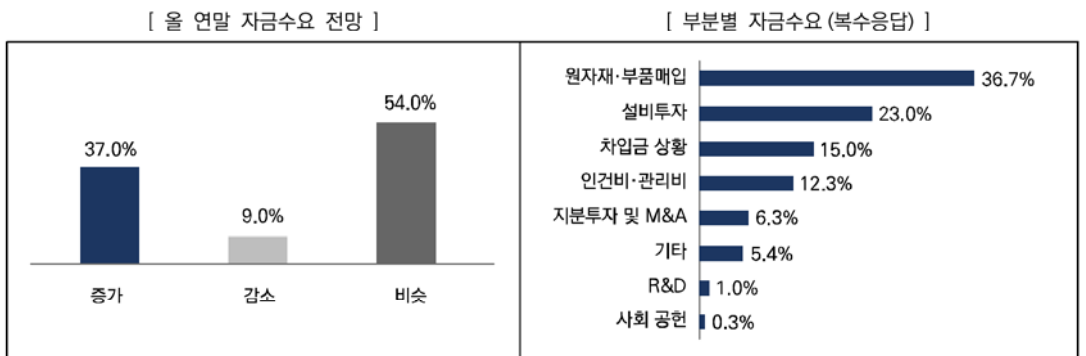
-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올해 연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37.0%)이 감소 전망(9.0%)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원자재·부품 매입(36.7%)이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23.0%), 차입금 상환(15.0%), 인건비·관리비(12.3%) 順

2) 전경련,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재무담당자 대상 자금사정 인식조사」('22.10.4) 참조

〈그림 4〉 기업 자금사정



〈그림 5〉 기업 자금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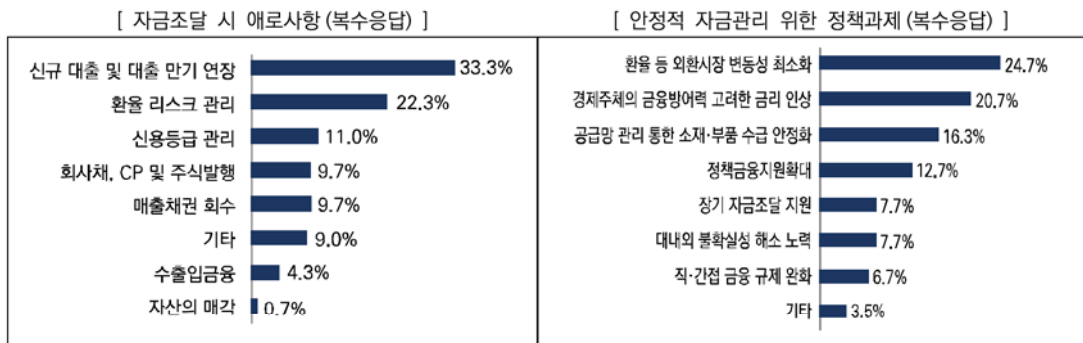


(3)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 자금조달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기업들은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33.3%), 환율 리스크 관리(22.3%), 신용등급 관리(11.0%) 등으로 응답

○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24.7%),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 고려한 금리 인상(20.7%), 공급망 관리 통한 소재·부품 수급 안정화(16.3%), 정책 금융 지원 확대(12.7%) 順

〈그림 6〉 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주: 복수응답은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 반영해 결과 산정(1순위: 2점, 2순위: 1점)

III. 해외 사례

1. 일본

(1) 일본은행 지원 정책

□ 일본은행 긴급 채권매입 착수

- 일본 엔/달러 환율이 150엔 턱밑까지 육박한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긴급 채권 매입에 나서기로 함³⁾
- 일본은행은 이날 10~20년물 국채 1천억엔(약 9천 500억원), 5~10년물 국채 1천억엔 매입 방침을 밝힘

(2)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의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

□ 자연재해,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 수행⁴⁾

- 국내의 금융위기, 대형 자연재해 등 정부가 인정한 위기상황 발생시 지정 금융기관 앞 신용 제공
- 위기대응원활화 업무를 통한 신용공급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동일본대지진 대응을 위해 2009회계연도 및 2011회계연도에 큰 폭 증가
- 신용공급은 2단계 대출, 손실보상, 이자보조금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최근 들어 2단계 대출보다는 주로 손실보상 형태로 금융지원 실시

2. 영국

□ 영국 중앙은행 지원책

- 영국 중앙은행 채권 매입 규모 2배 늘리고, 단기자금 지원도 확대

- 영란은행 22.10.14까지 하루 최대 50억 파운드 상당의 국채 매입⁵⁾
-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후, 채권가격 급락에 따라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던 연기금들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문제 해결 위해 국채 매입

○ 10.14 영란은행 긴급채권매입 종료 이후 추가 시장 안정조치⁶⁾

- BOE는 650억파운드(102조원) 규모 긴급 채권매입은 예정대로 14일 종료하되 그때까지 하루 매입 한도를 50억파운드에서 100억파운드로 늘린다고 밝힘

3. 중국

(1) 중국 정부 지원책

□ 2022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풍 맞은 중국 제조업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⁷⁾

- 중국 세무당국은 2022년 1분기 중국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총 3천335억 위안(63조2천849억원) 규모의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
- 중국 재정부는 2022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약 1조 5천억 위안을 영세기업과 제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발표

3) 연합뉴스, 『엔/달러 150엔 턱밑...일본은행, 긴급 채권매입 착수』(22.10.20) 참조

4) KDB 미래전략연구소, 『일본 대내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추진 동향 및 시사점 -JFC·DBJ를 중심으로』 참조

5) 이투데이, 『글로벌 증시·채권시장, '최대 100조원' 영국 긴급 채권매입에 환호...미국, 트러스 감세안 철회 압박』(22.9.29) 참조

6) 한국경제, 『영국 중앙은행 시장 추가 안정조치...긴급채권매입은 종료』(22.10.10) 참조

7)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역풍 맞은 中 제조업, 정책 지원으로 '돌파구』(22.5.3) 참조

(2) 산업지원제도⁸⁾

▣(보조금) 산업 진흥 및 기업 구제를 위해 예산으로 지출되는 기금

○ '18년 상장기업 3,671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총액은 약 1,57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07년에 비해 9.2배 규모로 증가

▣(세제 우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

○ 과학기술자 연구개발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

○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25%인데, 하이테크 기업은 15% 세율을 적용

▣(자금공급) 예산 외 경로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정부계 펀드 출자, 국가개발은행의 금융지원 등이 있음

○ 중앙정부가 360억 위안, 국개금융유한책임공사(국가개발은행 100% 출자 투자회사) 및 국유기업, 지방정부계 투자회사 등이 627.2억 위안 출자

8) 국제무역투자연구소(ITI), 「중국, 산업지원 제도 분석」 참조

IV. 기업금융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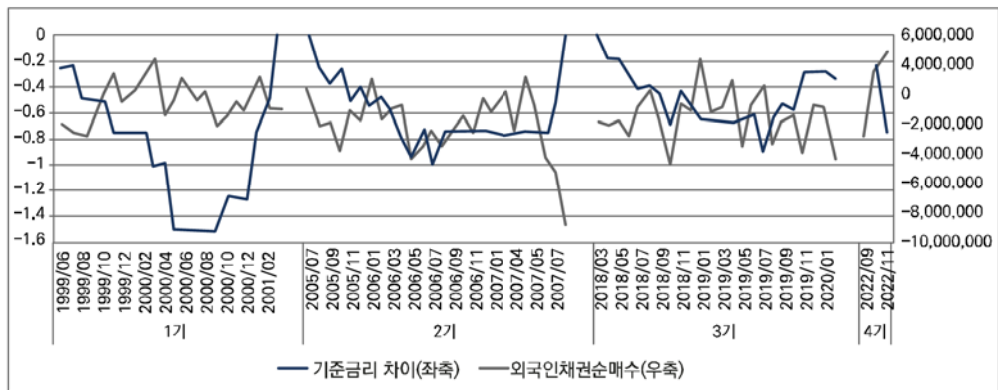
1. 기업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 국내기업 여건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허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야 함
-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 급격한 자금유출로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경험을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림 7〉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별 외국인 주식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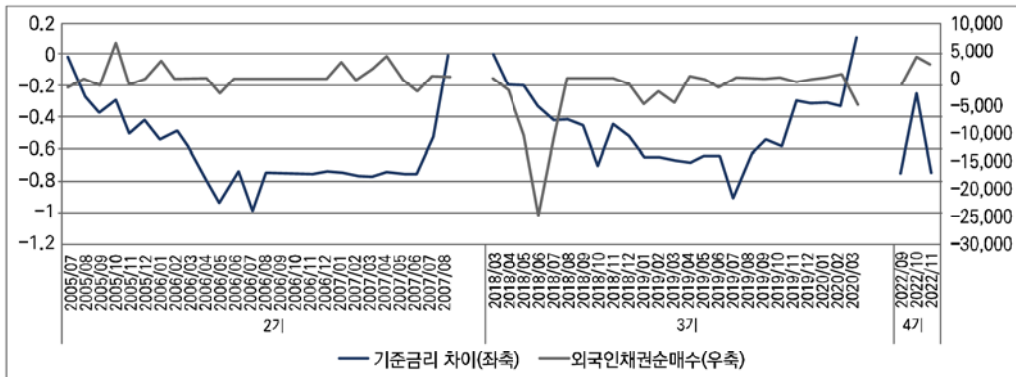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그림 8〉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별 외국인 채권 순매수

(단위: %, 백만원)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p>○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수를 분석한 결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 <p>*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었던 기간은 (1기) '99년 6월~'11년 2월, (2기) '05년 7월~'07년 8월, (3기) '18년 3월~'20년 2월이며, (4기) '22년 9월~현재</p> <p>□ 현재 명목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2년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음(붙임1)</p> <p>○ 국내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p>	<p>*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의미함</p> <p>** 명목 기준금리는 '22.12월 현재 기준이며, 물가상승률 최신데이터가 '22.10월로 실질 기준금리는 '22.10월 말 기준으로 비교한 것임(붙임1)</p> <p>2. 회사채 활성화 등 자금조달 지원</p> <p>□ 현재 시행 중인 회사채 활성화 방안</p> <p>○ 기재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50조+a의 유동성 공급방안 제시(22.10.23)</p> <p>○ 금융위, 금융시장현황점검회의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 노력('22.11.11 및 '22.11.28)</p>
--	---

〈표 7〉 유동성 공급방안

지원방안	지원방식 및 대상	지원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AA-이상), CP-전단체(A1), PF-ABCP(A1), 여전채(A+이상) 매입	20조원 (10/24부터 1.6조원 가용재원 우선활용)
회사채 및 CP 매입프로그램 확대	1) (산은, 기은) 회사채-CP 매입확대: 일반기업 회사채(대기업 BBB, 중견기업 BB, 중소기업 B이상)/ 일반기업 CP-전단체 차환물(A3 이상)에 금융회사 발행 CP등 포함 2) (신보) P-CBO 발행규모 확대: 신규 P-CBO 프로그램 대상에 건설사-여전사 지원 추진	1) 회사채-CP 추가매입여력 5.5조원→10조원(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잔여분 확대) 2) P-CBO 신규발행여력 2.6조원→5.6조원(미매입잔액 0.6조원+신규 프로그램 5조원)
증권금융 활용 증권사 유동성 지원	1) RP 거래: 기존 국공채-동안채-은행채+회사채(AA 이상) 2) 증권담보대출: 기존 RP 대상채권상장주식+회사채(AA 이상), CP(A1 이상), ABCP(예금형), 중금채 허용	3조원 추가지원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 검토	(검토예정)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행정안전부 보증채무 이행 확인	전국 13개 지자체의 총 26개 사업(1조 701억원 규모 보증,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증채무 충실 이행 확인	
PF 사업자 보증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단기유동성 위기 우량 사업장 선별 후 지원	23년까지 10조원 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P·CP 시장전반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PF-ABCP 매입프로그램 및 매입기구를 통한 지원 * PF-ABCP: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p>▣ 금융당국의 회사채 추가 매입 및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매매 대상 채권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채권시장안정펀드 총액 증액 및 회사채 추가 매입 ○ 한국은행 한시적으로 공개시장 매매 대상 채권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 	<h3>3. 기업금융 규제 완화</h3> <p>▣ 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대출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출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 ○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 시행 (<표 9>참조)
---	---

<표 8> CP, PF-ABCP 지원프로그램 개요

	일반회사		증권사	
	A1 등급	A2 등급 이하	A1 등급	A2 등급 이하
일반CP	채안펀드	산은·기은 CP 매입 프로그램	산은 증권사 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채안펀드 (건설사 보증)	산은·신보 건설사 보증 대상 매입프로그램 (신설)	금투업권·산은·증권 매입프로그램 (신설)	

<표 9> 유연화 조치 내용

- 1 예대출 규제비용을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은행 105%, 저축은행 110%)
 -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출 규제비용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
 - * (유연화 조치 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출 규제비용을 각각 105%, 110%로 완화('20.4월 ~ '22.6월) → '23.4월 재연장
- 2 은행 예대출 산출시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 제외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
 - 은행 예대출 산출시 해당 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하여 은행의 예대출 버퍼 확대
- 3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
 -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現] 10% → [改]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現] 20% → [改] 30%
- 4 그 외에도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 현재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105%, 비은행 110%로 유연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는 미치지 못함

○ 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을 비은행과 같은 수준(110%)으로 완화하거나, 은행 및 비은행 모두 예대율 규제비율 5~10% 추가 완화

○ 예대율 여력 확보를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5조원의 채권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요청),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함 (22.11.28)

4.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감소

○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성 있음

* 2016년 5월 3일, 시중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내려달라고 건의한 바 있음(당시 시중은행의 지준금은 약 51조원)

○ 현재 기업자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고려(〈표 10〉 참조)

- 기업 대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준율 25bp 인하

- 정기예금 등 2% → 1.75% 및 기타예금 7% → 6.75%로 완화

〈표 10〉 지급준비제도

① 지급준비제도

- (정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적용대상) 한국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음
- (기대효과)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음

② 예금종류별 지급준비율

- (예금 종류) 장기주택마련저축·재형저축(0.0%),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2.0%), 기타예금(7.0%)
- (보유기간) 각 금융기관은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매일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최저지급준비금을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보유하여야 함

□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사례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22년 4월 2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소형은행 50bp 인하)
- 기준을 인하로 5,300위안(약 102조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⁹⁾

5.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 지원

□ 기업 규모별 대응역량 현황

- 무역협회 회원사 중 801개사(대기업 45, 중견 191, 중소 565개사) 대상 조사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헤지 비율이 낮음('20.11.23)

□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및 한도 확대

-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적용되던 15%, 10% 할인율에 추가 30% 적용하여 최대 45% 인하

- * 선물환변동 보험은 환율이 하락해 손실이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상하고, 반대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분은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반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는 상품
- ** 산업부는 '20년 12월 무역보험공사의 일반형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30% 추가 할인한 바 있음

-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하고,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

- * 옵션형 보험은 환율 하락시 하락분 보상(무보→기업)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 환수는 없음

- 기존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한도 최대 3배까지 확대

- * 산업부는 '18년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백만 달러 → 3백만 달러)한 바 있음

9) 서울경제, 「中, 기준율 0.25%p인하...102조원 공급 효과」('22.4.16) 참조

〈표 11〉 기업규모별 환헤지 비율 응답률

(단위: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잘 모름
대기업	31.1	28.9	4.4	6.7	17.8	11.1
중견기업	69.1	16.8	7.3	2.6	3.1	1.0
중소기업	72.2	14.2	5.1	4.1	2.8	1.6
전체	69.2	15.6	5.6	3.9	3.7	2.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 환위험관리 홍보컨설팅 강화

○ 산업부, 무역보험공사의 본부 환리스크관리 조직 확대 및 지사별 환변동보험 전담인원 배치

-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컨설팅, 온라인 및 유선상담' 등을 활성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련 교육 컨설팅 확대

○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보급

* 환위험 인지 및 평가 방법, 조직내부의 의사 결정 체계 구축방법, 적정 환헷지 비율, 다양한 리스크 헷지 기법(무보 보험상품 포함) 소개 등

6. 기타 방안

□ 기업들의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있음

(1) 법인세 인하

○ '22년 7월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효과

- 기업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투자촉진, 경제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효과 기대

- 최근 자본의 이탈 방지 및 외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

○ 법인세를 OECD 평균(21.2%) 수준인 22%로 인하시 삼성전자 약 1조 6천억원 투자여력 증가

- 삼성전자의 '21년 세전이익은 약 53조 3,518억원에 법인세 25% 적용하면 세금으로 13조 3,379억원이나, 법인세 22%를 적용하면 11조 7,374억원으로 약 1조 6천억원 차이

- 그밖에도 세금감면액이 SK하이닉스 약 4,024억원, 포스코홀딩스 2,824억원, 현대차 2,387억원, 기아 1,918억원, SK 1,808억원, LG화학 1,467억원, LG전자 1,0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 R&D 세액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개선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투자 유인 및 외국 자본 유치

-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예상되어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표 12〉 법인세,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국제 비교

구분	기존	개편안
세율	최고세율 25%	22%로 인하
과표구간	4단계	2~3단계로 단순화
과세표준 특례세율 중소·중견(매출액 3천억 미만)	2억원까지 10% 적용	5억원까지 10% 적용

출처: 기재부(2022)

<p>*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 8천억원을 투자해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30% 세액공제(IRA 30%)를 받을 예정이며, 삼성은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5% 세액공제(미국 반도체지원법 25%)를 받을 예정</p> <p>○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R&D 및 투자세액 공제율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여력을 상승시킴</p> <p>- 대만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 추진</p>	<p>* 대만 정부, '산업혁신 개정법 개정(안)' 발의 (2022.11.17.)</p> <p>-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있음</p>
---	---

〈표 13〉 한국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R&D 비용]				[시설투자]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 사업화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	8	16

출처: 기재부(2022)

〈표 14〉 법인세,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국제 비교

구분	주요국	한국
법인세	15%(독일)	25%
R&D 세액공제	30%(프랑스)	2% (국가전략기술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배터리 30%, 반도체 25%(미국)	1% (국가전략기술 6%)

주: 대기업, 당기분 기준

출처: 이규석(2022)

(붙임 1) 한미 금리 역전시기에 명목금리 실질금리 비교

〈 한미 명목 기준금리·실질 기준금리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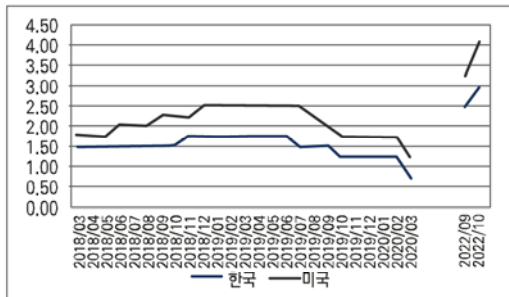
미국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한국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연도/월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연도/월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1999/06	5.00	1.97	3.03	1999/06	4.75	0.60	4.15
1999/07	5.00	2.14	2.86	1999/07	4.75	0.30	4.45
1999/08	5.25	2.26	2.99	1999/08	4.75	0.90	3.85
1999/09	5.25	2.63	2.62	1999/09	4.75	0.80	3.95
1999/10	5.25	2.56	2.69	1999/10	4.75	1.20	3.55
1999/11	5.50	2.62	2.88	1999/11	4.75	1.40	3.35
1999/12	5.50	2.68	2.82	1999/12	4.75	1.40	3.35
2000/01	5.50	2.79	2.71	2000/01	4.75	1.90	2.85
2000/02	5.75	3.22	2.53	2000/02	5.00	1.80	3.20
2000/03	6.00	3.76	2.24	2000/03	5.00	2.10	2.90
2000/04	6.00	3.01	2.99	2000/04	5.00	1.40	3.60
2000/05	6.50	3.13	3.37	2000/05	5.00	1.10	3.90
2000/06	6.50	3.73	2.77	2000/06	5.00	2.20	2.80
2000/07	6.50	3.60	2.90	2000/07	5.00	3.00	2.00
2000/08	6.50	3.35	3.15	2000/08	5.00	2.40	2.60
2000/09	6.50	3.46	3.04	2000/09	5.00	3.50	1.50
2000/10	6.50	3.45	3.05	2000/10	5.25	2.60	2.65
2000/11	6.50	3.44	3.06	2000/11	5.25	2.20	3.05
2000/12	6.50	3.44	3.06	2000/12	5.25	2.80	2.45
2001/01	6.00	3.72	2.28	2001/01	5.25	3.40	1.85
2001/02	5.50	3.53	1.97	2001/02	5.00	3.60	1.40
...				...			
2005/08	3.50	3.65	-0.15	2005/08	3.25	2.00	1.25
2005/09	3.75	4.74	-0.99	2005/09	3.25	2.50	0.75
2005/10	3.75	4.35	-0.60	2005/10	3.50	2.30	1.20
2005/11	4.00	3.34	0.66	2005/11	3.50	2.50	1.00
2005/12	4.25	3.34	0.91	2005/12	3.75	2.60	1.15
2006/01	4.25	4.02	0.23	2006/01	3.75	2.20	1.55
2006/02	4.50	3.64	0.86	2006/02	4.00	2.00	2.00
2006/03	4.75	3.42	1.33	2006/03	4.00	2.00	2.00
2006/04	4.75	3.61	1.14	2006/04	4.00	2.00	2.00
2006/05	5.00	3.98	1.02	2006/05	4.00	2.30	1.70
2006/06	5.25	4.18	1.07	2006/06	4.25	2.40	1.85
2006/07	5.25	4.10	1.15	2006/07	4.25	2.40	1.85
2006/08	5.25	3.93	1.32	2006/08	4.50	2.70	1.80
2006/09	5.25	2.01	3.24	2006/09	4.50	2.50	2.00
2006/10	5.25	1.41	3.84	2006/10	4.50	2.20	2.30
2006/11	5.25	1.97	3.28	2006/11	4.50	2.10	2.40
2006/12	5.25	2.52	2.73	2006/12	4.50	2.10	2.40
2007/01	5.25	2.08	3.17	2007/01	4.50	1.70	2.80
2007/02	5.25	2.42	2.83	2007/02	4.50	2.20	2.30
2007/03	5.25	2.80	2.45	2007/03	4.50	2.20	2.30
2007/04	5.25	2.59	2.66	2007/04	4.50	2.40	2.10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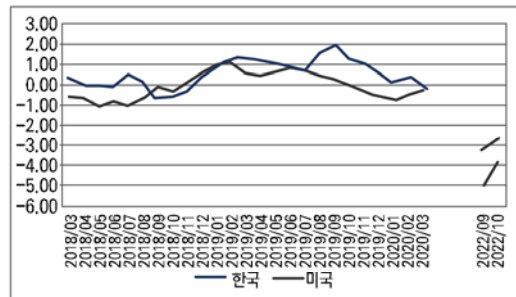
2007/05	5.25	2.71	2.54	2007/05	4.50	2.30	2.20
2007/06	5.25	2.69	2.56	2007/06	4.50	2.50	2.00
2007/07	5.25	2.32	2.93	2007/07	4.75	2.50	2.25
2007/08	5.25	1.90	3.35	2007/08	5.00	2.00	3.00
...				...			
2018/03	1.75	2.33	-0.58	2018/03	1.50	1.20	0.30
2018/04	1.75	2.44	-0.69	2018/04	1.50	1.50	0.00
2018/05	1.75	2.78	-1.03	2018/05	1.50	1.50	0.00
2018/06	2.00	2.85	-0.85	2018/06	1.50	1.50	0.00
2018/07	2.00	2.90	-0.90	2018/07	1.50	1.10	0.40
2018/08	2.00	2.68	-0.68	2018/08	1.50	1.40	0.10
2018/09	2.25	2.36	-0.11	2018/09	1.50	2.10	-0.60
2018/10	2.25	2.53	-0.28	2018/10	1.50	2.00	-0.50
2018/11	2.25	2.17	0.08	2018/11	1.75	2.00	-0.25
2018/12	2.50	1.92	0.58	2018/12	1.75	1.30	0.45
2019/01	2.50	1.50	1.00	2019/01	1.75	0.80	0.95
2019/02	2.50	1.48	1.02	2019/02	1.75	0.50	1.25
2019/03	2.50	1.88	0.62	2019/03	1.75	0.40	1.35
2019/04	2.50	2.01	0.49	2019/04	1.75	0.60	1.15
2019/05	2.50	1.81	0.69	2019/05	1.75	0.70	1.05
2019/06	2.50	1.69	0.81	2019/06	1.75	0.70	1.05
2019/07	2.50	1.82	0.68	2019/07	1.50	0.60	0.90
2019/08	2.25	1.76	0.49	2019/08	1.50	0.00	1.50
2019/09	2.00	1.73	0.27	2019/09	1.50	-0.40	1.90
2019/10	1.75	1.76	-0.01	2019/10	1.25	0.00	1.25
2019/11	1.75	2.03	-0.28	2019/11	1.25	0.20	1.05
2019/12	1.75	2.26	-0.51	2019/12	1.25	0.70	0.55
2020/01	1.75	2.46	-0.71	2020/01	1.25	1.20	0.05
2020/02	1.75	2.32	-0.57	2020/02	1.25	0.90	0.35
2020/03	1.25	1.53	-0.28	2020/03	0.75	0.80	-0.05
...				...			
2022/09	3.25	8.20	-4.95	2022/09	2.50	5.60	-3.10
2022/10	4.00	7.75	-3.75	2022/10	3.00	5.70	-2.70

〈 최근 한미 금리 역전시기에 명목금리 기준금리 비교 〉

[명목금리 추이]



[실질금리 추이]



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의미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붙임 2) 연체율 현황

□ 2022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말(0.24%) 대비 0.03%p 하락*(전년 동월말(0.24%) 대비 0.02%p 하락)

* 9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8월말 대비) : ('19.9월) △0.06%p → ('20.9월) △0.07%p → ('21.9월) △0.05%p → ('22.9월) △0.03%p

○ 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1조원)은 전월 수준이나, 연체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 대비 큰 폭 증가(+1.0조원)한데 기인

- ① (기업대출) '22.9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23%)은 전월말(0.27%) 대비 0.04%p 하락(전년 동월말(0.30%) 대비 0.07%p 하락)
- ②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19%)은 전월말(0.21%) 대비 0.01%p 하락(전년 동월말(0.17%) 대비 0.03%p 상승)

< 신규연체채권 및 연체 채권 정리 규모 >

	('20.9월)	('21.9월)	('22.4월)	('22.5월)	('22.6월)	('22.7월)	('22.8월)	('22.9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1.0	0.8	0.9	1.0	0.9	0.9	1.1	1.1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2.3	1.7	0.5	0.9	1.6	0.5	0.6	1.7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p)

구분	연체율 시계열 ('19.9월~'22.9월)	'19.9월	'20.9월	'21.9월 (A)	'21.12월	'22년		변동	
						8월(B)	9월(C)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57	0.37	0.30	0.26	0.27	0.23	△0.07	△0.04
대기업		0.64	0.28	0.28	0.24	0.13	0.05	△0.23	△0.07
중소기업		0.56	0.40	0.30	0.27	0.30	0.27	△0.03	△0.03
중소법인		0.73	0.53	0.40	0.36	0.38	0.33	△0.07	△0.05
개인사업자		0.34	0.25	0.19	0.16	0.20	0.19	0.01	△0.01
가계대출		0.29	0.22	0.17	0.16	0.21	0.19	0.03	△0.01
주택담보대출		0.21	0.16	0.11	0.10	0.12	0.12	0.01	0.00
가계신용대출등		0.45	0.36	0.30	0.29	0.42	0.37	0.07	△0.05
원화대출계		0.44	0.30	0.24	0.21	0.24	0.21	△0.02	△0.03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2022.11.17.)

(붙임 3) 만기도래 자금

- 2023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71조 4,474억원으로 추산됨(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데이터 참조)
- 1년 이내(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406조 934억원으로 전체 미상환 잔액의 37.4% (리더스인덱스 분석 참조)¹⁰⁾
-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회사채 발행 내역을 공시한 267개 기업의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1,084조 6,076억원
- 업종별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미상환 잔액은 은행(182조6,202억원), 여신금융(38조965억원), 자동차 부품(22조8,496억원), 공기업(12조1,378억원), 석유화학(11조5,885억원) 順

□ 금융·증권 미포함한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서울경제 참조)¹¹⁾

-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금융·증권 제외) 물량은 40조원 이상, 차환에 소요되는 추가 이자비용만 1조 3,065억원
 - (AAA급 회사채): 내년까지 만기 도래액은 2조 5,000억원
 -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 내년까지 26조 2,530억원
 - (A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내년까지 13조 7,525억원

10) 한국경제, 『대기업 회사채 중 '1년내 만기가 37%...미상환 잔액 406조』('22.11.15) 참조

11) 서울경제, 『우량채 금리도 3%P나 뛰는데...내년 'A급 이하' 만기만 14兆 달해』('22.10.20) 참조

〈 만기도래 채권 정리 〉

(단위: 억원)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증권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ABS	전체
22년 12월	148,072	8,720	42,383	153,000	166,502	54,550	20,213	32,071	625,510
23년 1월	11,914	2,863	45,491	71,400	143,104	48,524	43,926	8,182	375,404
23년 2월	11,784	1,946	51,302	132,400	168,504	49,319	70,622	16,017	501,893
23년 3월	313,704	6,192	43,760	19,200	175,400	56,112	43,742	19,458	677,569
23년 4월	12,192	2,719	57,288	110,100	185,302	56,290	83,685	20,526	528,103
23년 5월	12,191	4,984	42,901	12,700	234,808	60,360	78,219	22,481	468,644
23년 6월	274,465	3,158	62,109	105,700	206,501	72,690	78,823	42,914	846,359
23년 7월	13,788	2,556	60,932	18,800	214,611	66,390	61,110	21,563	459,749
23년 8월	11,162	5,188	42,694	88,000	164,506	72,525	27,957	18,905	430,937
23년 9월	234,098	3,606	39,620	16,600	184,602	62,270	74,321	20,078	635,192
23년 10월	14,644	2,364	59,156	89,700	118,008	58,450	73,332	20,453	436,108
23년 11월	13,368	2,365	45,929	6,100	144,404	64,496	48,251	31,448	356,360
23년 12월	235,845	3,215	45,231	0	50,891	67,645	10,273	20,973	434,073
합계	1,307,227	49,876	638,796	823,700	2,157,143	789,621	714,474	295,069	6,775,890

출처: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2년 12월 2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